

공단기 관리형 종합반 성적 현황					
구분	국어	영어	한국사	총점	출석율
진단고사	55	35	30	150	
중간고사	60	80	90	230	100%
기말고사	80	70	75	225	

### ● 동기부여가 되었던 종합반

종합반을 통해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본 시험에선 공통과목 평균 50점 정도, 특히 종합반 진단고사에서 영어 35점을 받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평소 토익 800점 이상에 해외 연수 경험도 있어 영어감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공무원 영어는 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공무원 쪽 과목엔 기본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합반 다닐 때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매일 아침 테스트를 시작으로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고 밤 10시에 2시간 거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두 달간 습관이 잘 잡혀 종합반 수강 후 공부하는 데 흔들림 없이 잘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습관을 잡고 싶거나 혼자 수험(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막연한 분들에게 저는 공단기 종합반을 적극 추천합니다. 2개월에 전 과목 1회독을 하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새벽부터 밤까지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험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보이니 동기부여도 많이 됩니다.

### ● 슬럼프극복방법

9~10월 두 달간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책을 보는 데 한 시간도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통해 복습하는 '강의형' 학습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기는 힘들었지만, 억지로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에 손을 놓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자 많은 합격수기들을 읽었는데, 그 중 '공무원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는 구절은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특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 ● 종합반 이후 커리큘럼 (12개월)

4개월 심화이론 → 2개월 기출문풀 → 2개월 진도별 모의고사 → 2개월 동형 모의고사